

고교 · 대학 문예인 '입상'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 이아영 · 고등 - 오승현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대학 - 황지원 · 고등 - 이해술



이아영



오승현



황지원



이해술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홍보기법사업회·최명희문학관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0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 4명이 선정됐다.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죽고' 를 쓴 이아영(단국대 문예창작과 3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터널' 을 선보인 오승현(대신고 3년) 군이 뽑혔다.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검은 피 캠프' 를 쓴 황지원(명지대 문예창작과 2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를 쓴 이해술(안양고 2년) 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 대학부 당선작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죽고' 는 감각적인 언어 사용으로 체험의 깊이와 생생함을 선보여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터널' 은 비유적 정

황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시상을 잘 정돈해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가는 집중력이 뛰어난 수상이 결정됐다.

소설 대학부 당선작 '검은 피 캠프' 는 할아버지의 병세가 손녀의 드센 기 때문이라고 믿는 부모에 의해 나주기센터라는 사이버 종교 단체의 캠프에 다녀오게 된 이야기를 다소 특이한 주제로 서술해 응모작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으로 뽑혔다.

고등부 당선작 '타는 목마름으로' 는 10대 화자가 한국과 타이완의 전직 운동가의 삶과 운동을 목격하고, 그들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문학상에는 267명이 603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시 부문에는 144명이 469편을, 소설 부

문에는 123명이 134편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만의 문화적 자산인 '가람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문재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며 "어려운 시기 귀한 작품을 보내준 전국의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는 1955년 전북대신문 창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와 논문을 공모했던 '학생작품 현상모집' 이 모태가 됐다.

전북대 신문방송사에서는 2017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1955년부터의 문학상 수상작을 정리, 총 5권의 '전북대학교신문방송사 문학상 당선작 전집' 을 발간했다. /장은성 기자

맞춤형 지역 문화리더 '육성 중'

전북문화관광재단

'아트잡 매칭데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맞춤형 문화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202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아트잡 매칭데이'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트잡 매칭데이' 는 공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생이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궁금증을 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며, 문화예술교육, 복합문화공간, 영상콘텐츠, 축제기획, 공간기획, 도시재생, 지역문화조사 등 7개 분야를 교육생들이 사전에 제안했다.

재단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달 10월 30일 완주복합문화공간 누에에서 교육생 30명과 지역문화 전문가 7명을 1대1로 매칭해 전문컨설팅을 진행했다.

전문컨설팅에서는 한 명의 교육생마다 관심 분야 2개씩을 매칭해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성장동력에 관한 조언을 들었으며, 이후에도 지역활동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 대기시간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19년 문화리더 선배' 의 현장 경험과 미래설계에 대한 잡(JOB)담화가 열렸다. 2019년



수료생인 김지영 씨(완주)와 박진영 씨(익산)는 자신이 활동하는 곳에서 경험을 사례로 교육생과 대화를 나눠 큰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박형욱 센터장(전북디지털사회혁신센터)의 사회혁신 분야 잡(JOB)담화를 추가해 '문화예술기획과 사회혁신' 의 주제로 지역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토론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지역문화를 이끄는 힘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생이 전북에 적합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이 총괄해 전국 7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대상 비대면 문화체험 개발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문학 체험 대면 활동이 제한적으로 비대면 문화체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한다. 새롭게 선보일 '종남문을 열고, 전주성으로!' 프로그램은 호남제일성 전주부성의 관문인 종남문과 성 내 문화유산들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영상 및 종남문 3D 조립 교구를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역사인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영상 감상과 박물관 전시실 감상을 시작으로 호남제일성 전주성의 관문 종남문과 전주부지도를 찾아보는 전주성 내 문화유산, 그리고 일체 퍼즐 종남문 만들기, 내가 완성한 전주성 지도까지 다양한 학습을 통해 우리지역의 옛 모습과 현재 자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전주지역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4일 효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30학급 75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한다. /장은성 기자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장수 동화분교 '오감만족 꼬마동화작가' 프로젝트

이달 산문집 출간... 지역 유적지 보고 느낀 생각 담아

장수 번암면 지리지 계곡에 위치한 동화분교(교장 신영희)는 2015년부터 '오감만족 꼬마동화작가' 프로젝트를(글쓰기 지도 박예분 아동문학가)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융합교육과정을 프로젝트에 적용해 '글에 음악 날개를 달아요' 로 확장 운영하면서 꼬마작가들이 글을 쓰고 자사, 작곡해 노래를 만들고 직접 노래하면서 음반과 함께 책을 출판해 왔다.



문 15편 중 창작동요 6곡을 만들어 함께 부르고 녹음해 음원을 제작했다.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꼬마작가들은 촬영감독의 세밀한 지도를 받으며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했고, 뮤직비디오에 데뷔한 동화분교 아이

들은 각자가 맡은 역에 몰입해 연기했다. 특히 일본 한병 역을 맡은 박동훈(6학년) 학생은 잔악하고 비열한 표정을 수 없이 반복 연습했으며, 박정훈(5학년) 학생은 "심장이 크게 쿵쿵 거린다"며 떨리는 가운데 단독으로 쿨기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동화분교 관계자는 "글과 음악, 미술, 무용, 영상 등 종합예술 활동인 '오감 만족 꼬마동화작가' 프로젝트는 해를 더할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렇듯 동화분교만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지속 성장해 종합예술 교육과정의 꽃을 피워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중 타이틀 곡이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호남 의병장 '전해산' 을 쓴 최민준(6학년) 학생은 기념관 방문은 물론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조사해서 글을 완성하는 한편, 동화분교학생들의 연기와 무용 작품까지 더한 뮤직비디오가 탄생했다.

이처럼 동화분교의 꼬마작가들이 쓴 산문 15편 중 창작동요 6곡을 만들어 함께 부르고 녹음해 음원을 제작했다.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꼬마작가들은 촬영감독의 세밀한 지도를 받으며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했고, 뮤직비디오에 데뷔한 동화분교 아이들은 각자가 맡은 역에 몰입해 연기했다. 특히 일본 한병 역을 맡은 박동훈(6학년) 학생은 잔악하고 비열한 표정을 수 없이 반복 연습했으며, 박정훈(5학년) 학생은 "심장이 크게 쿵쿵 거린다"며 떨리는 가운데 단독으로 쿨기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동화분교 관계자는 "글과 음악, 미술, 무용, 영상 등 종합예술 활동인 '오감 만족 꼬마동화작가' 프로젝트는 해를 더할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렇듯 동화분교만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지속 성장해 종합예술 교육과정의 꽃을 피워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중 타이틀 곡이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호남 의병장 '전해산' 을 쓴 최민준(6학년) 학생은 기념관 방문은 물론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조사해서 글을 완성하는 한편, 동화분교학생들의 연기와 무용 작품까지 더한 뮤직비디오가 탄생했다. 이처럼 동화분교의 꼬마작가들이 쓴 산



사진분야 최우수상으로 꼽힌 박상범작 '광한루 그리고 예촌을 품은 가을'.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

시, 드론 공모전 통해 사진·영상 선정

남원시가 '2020년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 드론 공모전을 통해 사진·영상 작품 21편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남원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전체 참가자들의 응모작은 관광홍보 활용성, 작품성, 독창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현장심사를 거쳐 영상 분야에서 9편, 사진 분야에서 12편이 선정되었다. 영상 분야에서는 김동욱(단체)의 '아름다운

山河 남원'이 최우수상으로 뽑혔고, 심재국의 '회상'이 우수상을, 박시홍의 '남원(雪)화(花)'이 계절상(겨울)을, 박재호의 '남원 봄 향기에 물들다'가 계절상(봄)을 수상했다.

사진 분야에서는 김남현의 '남원 시내와 요천'이 대상, 서광석의 '무릎 구부리며 핑크 인생을'과 박상범의 '광한루 그리고 예촌을 품은 가을'이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한편 시는 수상작 21편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할 예정이며, 영상 분야 수상작은 유튜브 채널 남원시TV를 통해 매주 1편씩 소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 금강권 전시장 온라인 순회 음악회 '큰 호응'

칸투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재능기부로 펼쳐지는 금강권 전시장 온라인 순회음악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피로도 해소 및 군산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강권 전시장 온라인 순회 음악회를 오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칸투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무료 재능기부로 추진되는 이번 음악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 철새조망대에서 각각 진행된다.

첫 번째 공연으로는, 지난달 23일 호국보훈을 주제로 3.1운동100주년기념관에서 현악연주회가 진행됐으며, 공연이 끝나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감상해 높은 호

응을 이끌었다. 두 번째 공연은 오는 5일 군산 문화 및 교과서를 주제로 채만식문학관 야외 정원에서 개최된다. 전시장 내부에서는 음악회와 연계된 '광복 이후, 교과서의 시간'전이 개최돼, 50~70대 관람객들의 추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일 개최되는 마지막 공연은 금강철새조망대에서 기후·환경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철새조망대 관람 후 음악회를 함께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꾸러미를 증정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한정된 인원만 관람 가능한 이번 음악회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진행한다. /군산=한영복 기자



축하! 전주매일 창간

서부지방산림청

숲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산을 매입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이 갖는 수원함양·휴양·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한 산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미래엔 더욱 푸르게 서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합니다.

관할 국유림관리소
정읍 063) 570-1921, 무주 063) 320-3621, 영암 061) 470-5321, 순천 061) 740-9321, 함양 055) 960-2521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리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